정례브리핑

2020.6.26(금) 10:30, 조혜실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차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참전유공자의 자택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정만 공개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의 군사조치 보류가 8월 한미 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철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통일부는 언제까지 이 조치가 이어질지, 또 이 보류조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북 대화, 설득 노력 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6월 24일 자 북측의 보도를 통일부로서는 현재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보면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에서 북한에 풍선에

다가 성경 보냈다고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의 입장하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가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금지 방침을 밝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품을 북한에 살포하려고 시도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유관기관에서 현장 인근 CCTV 및 군 감시장비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이미 수사의뢰가 된 단체로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수사의뢰는 언제, 주체가 누구인가요?

<답변> 경기도가,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도가 지난번에 4개 단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질문> 정부가 수사의뢰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답변> 예, 정부... 경기도가 수사의뢰한 단체가 4개 있는데 그중에 2개는 통일부가 이미 수사의뢰를 한 단체고, 나머지 2개는 경기도가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순교자의 소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통일부 당국자께서 북한의 군사보류 조치는 긍정적 신호의 출발이라고 평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화의사도 표현하셨는데 북한이 철회의사를 밝히기 전에 정부가 조금, 지금 남북 간 긴장국면을 고려했을 때 공식적으로 대화제의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저희로서는 6월 24일에 북한에서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발표와 함께 대내 공식매체에서 대남 비난기사를 보도하지 않고 있는 등 이런 동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후속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말씀 외에 더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